

전환기 한국사회의 지성사적 논제

철학에서의 진보적 인식들과 그 영향 및 쟁점

이봉재

한양대 강사·철학

20세기말의 현대는 참으로 단순치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문명의 고도한 발전에 의하여 문명의 물질적 기반은 한없이 풍부해진 반면, 궁핍한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풍요의 폐해들이 점차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발달된 과학의 직설적인 귀결로서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풍요의 쓰레기들이 초래한 공해 및 환경파괴의 문제, 그리고 풍요의 편재에 의한 제3세계의 빈곤문제 등은 현대문명의 위기로 일컬어지기에 모자람이 없다. 더군다나 최근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을 목도할 즈음이면, 역사의 이데올로기적 진보에 한없이 열렬하였던 지식인들에게는 하나의 종말이 예고된다는 느낌 또한 어색한 것이 아니다. 비관론자들에게는 정녕 회복할 길 없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문제는 차라리 심오하다. 그것은 위의 문제들이 어떤 실천적, 기술적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누군가가 과학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의 이념 또한 그 실천에 있어서 나타냈던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진지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늘의 문제는 실천상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은 현대문명의 틀 자체에서 예비되었다는 것이 최근 많은 철학자들의 생각이다. 그리하여 근대이래 서구문명의 전반적 구도 특히 그것의 이성주의적, 합리주의적 전제를 재검토하는 시도들이 긴요해지며, 그것이 당대 서구철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른바 '탈현대 post-modernism 논쟁'이다. 그 논제는 "현대 그리고 현대의 지표로서의 이성은 그 시효

를 다했는가"라는 것이다.

이성과 합리주의의 재검토

서양현대문명의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적 편향은 그 뿌리를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계몽주의는 서양중세를 지배하였던 신학적 질서를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등 일련의 지적 혁명을 통하여 극복해낸 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성에 대한 과감한 자부심을 표명했던 사상사조이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 자연을 이해,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인간의 자연지배를 권리로서 확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당대 과학의 압도적인 성취와 사회적 진보에 의하여 증명된 듯 보였으며, 그 이후 우리를 원시적이며 경직된 사고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해주는 도구로서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는 서구 지성사를 관통해왔다. 단적으로 말하여 이성과 이성의 표상으로서의 뉴튼물리학을 내세워 인간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그를 통한 행복의 성취를 장담했던 합리주의적 낙관주의가 바로 계몽주의였다.

이러한 '계몽적 이성' 개념이 현대문명의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이가 바로 베버(M. Weber)이다. 베버에 있어서 이성개념은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 현대사회의 구성원리로 제시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합리성이란 '탈미신화'의 사고방식, 행동유형의 특성을 이르는 것으로서, 베버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오직 수단-목적의 연관성만을 행위의 결정인자로 고려하는 이른바 '합목적적' 행위

유형이다. 그러한 행위유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시장경제와 관료제라는 서양현대사회의 골간조직이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과연 합리성은 현대의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K. Marx)의 자본주의비판이 보여주듯 이후 서양현대사회의 모순은 증폭되어갔으며, 그에 따라 합리성개념에 대한 신뢰 또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베버 자신 현대사회의 합리성이

갖는 역설을 경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의 합리화는 대규모 생산 및 조직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반면 개개인들은 조직의 구성인자로서 이외의 어떠한 인격적 의미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인간소외'의 현상을 배태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중엽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와 아도르노(T. W. Adorno)가 서구를 지배하는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이라 이름하며, 그것들은 모든 대



脱手作業 선언!!

완벽한 페이지 조판
민기획 전산조판을 이용
하시면, 대지작업에 소요되는
-人力과 時間을 줄일 수 있습니다.

編輯教育을 받은 오퍼레이터
良質의 組版物
出版社의 대만족

한국컴퓨터그래피의 入力編輯機 PHOENIX-2000 32대,
HCG-8305 1대, 레이저프린터 LASERSETTER-4000 <400
dpi> 1대, LASERSETTER-COMPOSE <600 dpi> 1대, 出
力機 NEWSSETTER (IBX) 1대, 現像機 TRISTAR 1대

Total Publishing

출판에 관한 대행하여
모든 공정을 드립니다.

원고 집필/원서 번역 표지 디자인 교정

기획 원고 편집·레이아웃 조판 제판·인쇄 제본

광 고

전화연락을 주시면 민기획
專用的 『電算組版活字體』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가
됩니다.



민기획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 Bldg. 318호)
TEL. (02) 277-6077, 6078 277-1038, 1039
FAX. (02) 277-6101

상을 오직 도구적 효용성의 관점에서만 판단함으로써 결국 자연과 타인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대서구문명의 본질이 도구적 이성의 심화 내지는 우위에 있다고 진단하며, 제사회적 위기의 진원을 여기서 찾는다.

역사적 산물로서의 이성

한편 최근 프랑스의 급진적 철학자들은 근대적 이성개념의 보편적 실제 자체를 부정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푸코(M. Foucault)에 따르면, 서구현대성의 보루인 이성은 결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며, 근세 특유의 권력-지식의 연계망이 구축한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그는 이성개념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서양 고중세를 통하여 전혀 명료한 것이 아니었던 '이성/비이성(광기)'의 위계적 구분이, 18세기 이른바 '이성의 시대'에 이르러 정신병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의 필요성과 그를 정당화하는 임상심리학이라는 지식체계의 도움을 빌어 실제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성이란 그 자체 불편부당한 역사의 준거점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며, 또한 사회구성원의 '신체'에까지 그 구속력이 침투하는 무자비한 힘의 변태된 형태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히 현대이성의 불순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성의 편협성 및 역사적 부정성이 폭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의 실제적 가치가 부정된다. 출구는 무엇인가? 베버,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등은 비

관적이다. 현대사회의 합리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따라서 합리화의 '철장' 또한 모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반면 푸코 등은 근대이래의 이성개념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일단 비판주의와 비합리주의의 딜레마인 듯하다. 이러한 곤경은 현대인식론의 상대주의 논의에서 다시 재연된다.

현대철학에 있어서 상대주의는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양자역학 및 지식사회학, 언어철학의 제성과가 그 문제를 첨예한 형태로 제기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것이 갖는 지성사적 중요성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넓게 보면 상대주의란 중세 기독교왕국에서 구현된 객관적 질서의 해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따라서 그것은 서양 근세문명의 업보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적 의의를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20세기 초 문화인류학의 대두 이래이다. 문화인류학이란 원래 서구 열강의 식민지경영의 필요성에서 유래한 학문이다. 그러나 여러 문화의 이질성이라는 충격적인 체험에 의하여 결국 서구합리주의의 폭력적 보편주의-그것의 정치적 형태가 제국주의다-에의 비판이자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이래 다른 문화의 윤리, 지식, 진리는 서로 다른 기준 아래 놓여 있다는 상대주의의 논제는 '문화적 정통'이 되었다. 이제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에 의하여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상대주의는 서구합리주의에 대한 중흥할 만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액면 그

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철학자들의 생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상대주의가 조장하는 비합리주의와 지적 패배주의 때문이다. 상대주의는 그 본성상 문화적 종합에 대한 지적 갈구를 위축시키는 한편, 그들의 보편이성에 대한 거부할 수 없을 경우, 앞서의 논의가 보여주듯 우리에게 적나라한 힘과 권력 이외의 어떠한 객관적 가치도 존재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철학자들은 상대주의라는 논제로부터 최근의 이성비판논의가 갖는 음험함의 철학적 표현을 발견한다. 상대주의논의의 시대사적 중요성이 이것이다. 상대주의의 인본주의적 통찰을 보유한 채 그것의 회의주의적 경향을 제어하는 것이 현대철학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우리역사 위한 철학논구의 필요성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으나 다시금 한 세기의 종말이 다가오고, 그에 따른 세기말적 혼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19세기의 '세기말적 우울'이 오늘날 '탈현대'의 음울한 음조로 되살아오고 있는 듯하다. 이 광범위한 혼돈의 중심에 바로 이성의 문제, 합리주의의 문제가 놓여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였다. 그것은 일개문제가 아니라 18세기 이래의 시대정신이 검토되는 중차대한 것임을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고 싶었다.

철학이 자신의 문제영역을 문제의 심도와 포괄성에 의해서 찾는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은 그야말로 철학적인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학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

하여 진지한 논쟁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민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기획의도에 어긋나겠지만) 국내의 관련논의를 소개할 수 없었다. 대신 최근 지성사의 논제들을 조망하는 철학적 틀을 보여주려 했으며 오히려 쟁론을 고무, 예고하려는 것이었다.

이 글이 소개한 여러 문제들은 일단 전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서구선진사회의 발전사를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무관치 않다는 점 또한 유념하여야 한다. 환경문제, 핵위협 등 현대문명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들이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서 나타났으며, 서구합리주의의 폭력성 또한 우리현대사에 식민지체험과 제3공화국의 잔혹했던 근대화정책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란 곧 서구화로서, 서구화란 다름아닌 서구합리주의의 산물인 과학기술문명 및 사회구조, 산업구조의 이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우리의 식민지체험 또한 발 빠르게 근대화한 일본의 합리주의가 초래한 재앙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성의 문제, 합리주의의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낯선 것일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문명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역사의 처절한 굴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을 논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비장함은 여기에 있다. 20세기초 우리민족을 맞이한 것은 국권상실과 식민지화의 비극이었다. 21세기가 우리에게 마련해놓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만화홍보그룹



만화홍보
현대기획
TEL. 335-3357

■ 하는일 : 각종 만화홍보책자/기업문화 상품광고/카타로그·팝아트/정치홍보물/출판물 컷 등

만화로 익히는 직장인의 예절



4×6배판 160쪽 본문 2도인쇄 값5,000원
● 단체구입시 표지에 상호, 회사로고 넣어드림
● 단체주문, 책문의 (02) 323-4483
(교보문고, 을지서적, 종로서적 및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총판 : 진명서적 272-5871)

직장인의 고운 맵시
바른말씨는 곧 그 회사의
품격이며 얼굴입니다!!

주요내용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기본자세와 동작
바르고 요령있는 대화예절/교양있는 직장인의
매너/친절하고 세련된 전화응대/신뢰받고 친근감
있는 고객응대/웃차림 물치장 요령/요령있는 출
장, 해외여행/현대인의 식사예절/세계의 매너와
에티켓/호칭 인사예절/스포츠 매너/공공예절/경
조사/VIP에 대한 예절

도서출판

현대미디어
TEL. 323-4483 338-2779
FAX. 334-7958